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7卷(3), 2014. 12. pp. 203-227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가정배경과 청년기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기 종** · 곽 수 린***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로발달 특성과 직업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향은 가정배경인 부모학력과 가정소득,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활동,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전공일치와 직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은 고교 계열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변인은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그리고 직업만족도이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이며, 분석 프로그램은 LISREL이다.

분석 결과는 계열, 즉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 간의 인과관계 맥락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두 모형의 공통적인 결과는 전공일치가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학습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진로발달,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

투고일: 2014년 07월 30일, 심사일: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05일

* 이 논문은 2014년 2월 제9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토론 및 심사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국민대학교 교수 (rhee0408@kookmin.ac.kr)

*** 제2저자(교신저자), 고구려대학교 교수 (slkwaug@kgrc.ac.kr)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캥거루족, 연어족(부모로부터 독립했다가 생활고로 다시 복귀하는 젊은이), 피터팬 신드롬 등의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젊은 세대를 양산하는 것은 헬리콥터 맘, 엄친아 선망과 관련되어 있다. 즉 캥거루족, 연어족은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은 엄친아를 만들기 위해 성인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의존하게 만드는 헬리콥터 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범문화적 현상으로 보인다.

Hoffer & Moore(2010)는 조사를 통해 대학을 졸업해도 직업과 배우자, 주거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성인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초기 성인기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자녀에 대한 큰 기대로 과도하게 간섭하는 ‘헬리콥터 맘’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헬리콥터 맘은 자녀의 학업적, 사회적, 직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자녀의 대학생활, 그 이후의 삶, 심지어 자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혜상, 2011).

이와 같은 사회적 특성과 연계된 또 하나의 부작용이 ‘삼포현상’이다.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 지출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을 지칭하는 삼포세대(시사상식사전, 2014)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초기 성인기 과정에 있는 이러한 세대들의 문제는 독립적인 성인기 생활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성인기의 중요한 활동인 직업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진로탐색 단계인 중학교에서 진로 및 직업을 직접 탐색해 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중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마련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https://freeseam.moe.go.kr>). 이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여부와 별도로 미래 만족스런 직업생활이 어느 특정 시점이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

교, 그리고 사회가 학생의 적성과 흥미 등을 포함하여 진로탐색에 충분한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결실을 보게 되는 장기과정임을 인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가족의 지원과 배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신의 역량 인지를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여 성인으로 이행함으로써 만족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과관계 맥락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직업만족이 진로발달과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각 진로발달 단계에서 적절한 과업달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이 매우 탁월한 한국 사회 청년들이 삼포세대로 전락하지 않고 미래 건강한 생활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단초를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배경이다.

II. 가정배경 및 진로발달 특성과 직업만족도와 관계

직업적응은 개인이 직업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지속적인 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된다(Lofquist & Dawis, 1969; 김봉환 외, 2013 재인용). 따라서 직업만족도는 직업적응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만족도는 특정시점에서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로발달 이론들은 제시해 주고 있다. Ginzberg et al.(1951)은 진로에 대한 고정적이고 일회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환상기(초등학교 시기), 잠정기(청소년기, 중학교 시기), 현실기(청년기, 고등학교 이후 시기)로 구분하였다. 고등학교 시기는 현실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미래 진로에 대해 구체화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특히 이 현실기는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탐색기, 진로결정을 하는 결정화, 그리고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구체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또 Super(1990)는 헤비거스트(1953)의 발달과업을 차용하여 진로란 한 개인의 생애 과정으로서 개인은 일생동안 일련의 발달과업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발달과업을 수행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등학

교 시기는 탐색기에 해당되며, 특히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상급학교나 구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직업만족은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 그리고 진로준비가 각 단계마다 적절하게 수행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진로적응의 최종목적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발달 특성은 직업만족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발달 이론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한 청소년기는 진로를 최종적으로 탐색하여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진로발달 과정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인문계인 경우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다음 단계인 청년기에 진로준비를 통해 직업생활로 연계되는 반면, 전문계인 경우는 진로에 대한 선택을 이미 마무리하고 진로준비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학습의 차이로 나타나며, 따라서 진로탐색, 진로선택, 진로준비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직업만족 및 적응에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문승태·김연희, 2002; 신희영·김우영, 2005; 오현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 2010; 유명미·문승태, 2005; 이현림·천미숙, 2004; 최수정·정철영, 2007; 함승연, 2011).

진로발달 이론에서 미성년인 청소년기는 진로탐색 및 결정과 관련된 진로발달 단계에 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의존하여 성인에로의 이행을 위한 학습과 경험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 또는 직업탐색과 결정에도 가정배경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을 포함한 사회계층은 개인의 교육정도, 직업포부수준, 지능수준 등이 다르며, 이런 요인들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Basow & Howe, 1979; Hollander, 1972; McKay & Miller, 1982; Werts, 1968; 기영락·임성택, 2010; 김종운·최미숙, 2011; 박용관, 2003; 송민경, 2009; 이효정, 2001).

가정배경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업활동과도 연계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업활동은 개인의 흥미나 적성보다 미래 직업선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 시점인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은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은 전문화 과정인 대학전공과 수학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추후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김성남, 2013; 김장희·정성수, 2012; 오성배, 2012; 임선아, 2013; 조성연·이선순, 2006).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교과학습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진로 탐색에 필요한 학생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는 데 별도의 학습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현행 국가수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비교과인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으로 분리되어 있어, 진로활동이 교과학습 이외의 영역에서 수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교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용 가능한 가치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여 담아 놓은 것이므로 그 영역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가 학교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교과 학습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교 학습 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나 각 학교의 재량 활동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가 교과학습을 통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과교육 분야에서 각 교과학습이 진로교육과 연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진영, 2010; 권지은, 2010; 도성화, 2014; 손현희·박미정·채정현, 2009; 이대성, 2011; 박미희·조규성,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교과학습이 진로탐색, 진로선택, 진로준비를 위한 결정적인 정보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교과담당 교사들은 해당교과 자체의 학문체계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진로지도의 관점에서 삶의 문제 및 직업의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더 의미있고 흥미있게 교과를 배우게 된다. 교과담당 교사들이 진로지도의 관점에서 교과를 지도 할 필요성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전략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김봉환 외, 2013).

Super(1990)는 헤비거스트의 발달과업을 차용하여, 진로발달이란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의 발달이라고 보았다. 학교, 또래, 가정 등 한 개인이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확인하게 되고 일에 대한 가치, 흥미, 태도를 형성하면서 생애과정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직업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요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아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만족도가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와 직결되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를 인지하는 것이 자아정체감이다. 따라서 직업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은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Herr & Cramer, 1992; 고미나·박재황, 2008; 김종운·최미숙, 2011; 전훈·조형대·조현진·이혜선, 2010; 조명실·최

경숙, 2007).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학령기 전공과 직무의 일치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진로발달 과정에서 미래 직무와 관련된 학습과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전공이 직업만족도를 높인다는 국내외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Smart et al., 1986; Elton & Smart, 1988; Fricko & Beehr, 1992; 광필순·김봉환, 2005; 김성남, 2013; 박소영·민병철, 2008; 어윤경, 2010).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 이론과 직업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정배경과 진로발달 특성인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진로발달 과정에서 전문화 과정이 다른 계열, 즉 인문계와 전문계 간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 맥락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고등학교 3학년 패널 1~9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 고3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업만족도에 응답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직업과 관련된 분석이기 때문에 계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고등학교 계열, 즉 인문계와 전문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최종 사례 수는 인문계 패널 1,108명, 전문계 패널 1,078명이다.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잠재변수와 그에 포함된 측정변수, 그리고 분석에 포함된

측정변수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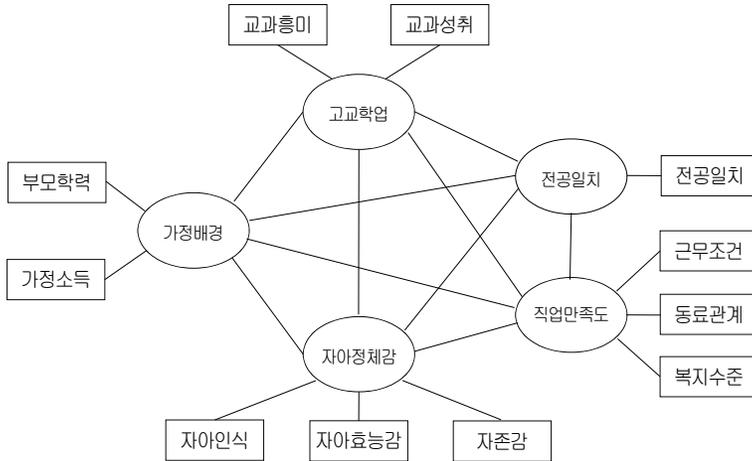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인명		내용	참고
가정배경	가정소득	가족 월평균 소득(로그변환)	고3 시점의 자료(1차 자료)
	부모학력	부모 교육 연수 평균	
고교학업	교과흥미	교과에 대한 흥미	고3 시점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평균
	교과성취	교과에 대한 성취	
자아정체감	자아인식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중요한 일 인지 정도	-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인 7차, 8차, 9차 자료를 병합 - 9차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9차 자료에 없는 경우 8차, 7차 순으로 병합
	자아효능감	결단력, 계획수행능력	
	자존감	자아존중감	
전공일치	전공일치	현재직업과 전공과 일치 정도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환경, 시간, 임금	
	동료관계	직장 내 대인관계	
	복지수준	안정성, 복지후생, (발전가능성)	

3.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과 진로발달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문계 패널과 전문계 패널 간 학업배경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5개의 잠재변수와 11개의 측정변수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직업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자료 분석은 SPSS와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평균차이 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Pearson 적률 상관계수로 제시하였다. 계열 간 평균차이 검증은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만을 탐색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의 특성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정변수의 계열 간 차이를 탐색해 보고자 수행하였다.

가정배경과 청년기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기법이다(이기중, 2012).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L)이며, 구조방정식모형 추정에 적용하는 유의수준은 평가지수에 따라 각기 다르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분석

〈표 2〉는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표 3〉은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2〉의 기술통계량은 분석에 투입된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방정식모형의 ML추정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분석변수의 정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인문계와 전문계의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으로, 직업만족도 관련 변수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특히 전문계의 경우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가 계열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 기술통계량

항목 변수	인문계(n=1108)						전문계(n=1078)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부모학력	6.00	21.00	11.89	2.54	-.094	.533	6.00	18.50	10.22	2.46	-.084	-.368
가정소득	3.69	7.60	5.59	.56	-.228	.688	2.71	7.31	5.25	.59	-.277	.411
교과흥미	1.13	4.88	3.20	.54	-.119	.171	1.00	5.00	2.85	.60	-.341	.471
교과성취	1.00	4.38	2.69	.50	-.075	.158	1.00	4.25	2.53	.55	-.028	.239
자아인식	1.00	5.00	3.76	.63	-.373	.742	1.00	5.00	3.56	.66	-.351	.711
자아효능감	1.00	5.00	3.60	.71	-.285	.036	1.00	5.00	3.47	.72	-.174	.170
자존감	1.00	5.00	3.85	.70	-.385	.554	1.00	5.00	3.64	.75	-.360	.606
전공일치	1.00	5.00	3.30	1.22	-.358	-.716	1.00	5.00	3.11	1.10	-.263	-.455
근무조건	1.00	5.00	3.50	.75	-.220	.205	1.00	5.00	3.35	.72	-.266	.484
동료관계	1.00	5.00	3.32	.82	-.134	-.089	1.00	5.00	3.23	.75	-.276	.311
복지수준	1.00	5.00	3.32	.80	-.327	.329	1.00	5.00	3.21	.75	-.296	.381

<표 3> 상관계수

변수	부모 학력	가정 소득	교과 흥미	교과 성취	자아 인식	자아 효능감	자존감	전공 일치	근무 조건	동료 관계	복지 수준
부모학력	1.000	.468**	.106**	.180**	.088**	.057	.069*	.003	.023	.041	.028
가정소득	.344**	1.000	.097**	.153**	.097**	.051	.055	-.008	.041	.030	.031
교과흥미	.028	.035	1.000	.597**	.169**	.112**	.160**	.062*	.065*	.070*	.036
교과성취	.053	.068*	.691**	1.000	.171**	.163**	.193**	.092**	.062*	.080**	.038
자아인식	.091**	.058	.143**	.131**	1.000	.632**	.552**	.044	.030	.027	.031
자아효능감	.056	.029	.140**	.152**	.704**	1.000	.613**	.054	.054	.062*	.076*
자존감	.004	.042	.129**	.128**	.582**	.616**	1.000	.023	.048	.046	.035
전공일치	-.013	.049	.029	-.001	.073*	.056	.097**	1.000	.199**	.410**	.275**
근무조건	.024	.006	-.040	-.047	.044	.011	.033	.173**	1.000	.598**	.506**
동료관계	-.004	.052	-.011	.001	.043	.022	.049	.341**	.637**	1.000	.544**
복지수준	.014	.076*	.010	.001	.043	.020	.043	.187**	.572**	.579**	1.000

* $P < .05$, ** $P < .01$, 대각선 위: 인문계, 대각선 아래: 전문계

<표 4>는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측정변수의 계열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측정변수 11개 모두 계열 간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문계 학생의 평균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가정배경, 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및 직업만족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설정된 각 요인 간의 경로가 계열 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평균차이가 인과관계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열 간의 평균차이를 근거로 하여 인문계와 전문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각각 분리하여 검증하였다.

<표 4> 계열 간 평균차이 분석

측정변수	계열	평균	t(df=2184)
부모학력	인문계	11.8989	15.644***
	전문계	10.2222	
가정소득	인문계	5.5912	13.755***
	전문계	5.2510	
교과흥미	인문계	3.2040	14.179***
	전문계	2.8564	

측정변수	계열	평균	t(df=2184)
교과성취	인문계	2.6937	7.148***
	전문계	2.5308	
자아인식	인문계	3.7650	7.056***
	전문계	3.5690	
자아효능감	인문계	3.6024	3.994***
	전문계	3.4796	
자존감	인문계	3.8574	6.866***
	전문계	3.6419	
전공일치	인문계	3.3042	3.693***
	전문계	3.1197	
근무조건	인문계	3.5078	4.733***
	전문계	3.3581	
동료관계	인문계	3.3227	2.507**
	전문계	3.2379	
복지수준	인문계	3.3227	3.377***
	전문계	3.2101	

*P<.05, **P<.01, ***P<.001

2. 직업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표 5〉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카이제곱(χ^2)은 정량적 적합도 평가지수로 영가설은 이론에 의해 설정된 모형이 시사하는 모형공분산행렬이 모집단 변수들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집단공분산행렬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을 평가할 때 χ^2 값이 크고 확률 값이 유의미하게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이기중, 2012).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본 연구모형은 인문계 41.01 (df=34, p=.190), 전문계 43.51(df=34, p=.127)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성적 적합도 평가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는 표본공분산행렬이 모형공분산행렬에 의해 예언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표본공분산행렬의 분산과 공분산이 이에 대응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원소들로 예측되는 정도를 1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합치도 지수이다(이기중, 2012).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90으로 볼 때, 인문계와 전문계 모형은 공통적으로 .99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또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표본공분산행렬과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차이이므로 그 값이 작을 때 적합한 모형이 되며, 그 값이 커질수록 모형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설정된 유의수준을 .05로 적용할 때, 인문계 모형은 .014, 전문계 모형은 .017로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측정변수 11개와 잠재변수 5개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한 결과,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 모형은 매우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두 집단의 모형이 동일한 맥락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211.49(df=100, p=.000)$ 로 정량적 적합도 검증에서 유의한 모형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의 직업만족도 관련 인과관계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와 전문계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단, 두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한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표 5>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구조방정식모형	χ^2	df	GFI	RMR
인문계	41.01(p=.190)	34	.99	.014
전문계	43.51(p=.127)	34	.99	.017
다중집단(인문계·전문계)	211.49(p=.000)	100	.98	.043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정이 충족되고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각각의 추정치를 확인하여 변인간의 영향력 또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각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변수의 설명 값을 확인하였다. <표 6>은 두 개의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의 표준화 추정치와 그 유의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에 대한 측정변인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 모두 전체 측정변인은 $p<.001$ 수준에서 각 잠재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측정모형의 적합도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이 그 잠재변인을 잘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의 구조방정식모형의 개별추정치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6> 측정모형

		인문계				
변 수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
가정배경	부모학력	.73(10.54)*	-	-	-	-
	가정소득	.64(10.25)*	-	-	-	-
고교학업	교과흥미	-	.66(10.20)*	-	-	-
	교과성취	-	.91(8.31)*	-	-	-
자아정체감	자아인식	-	-	.76(22.00)*	-	-
	자아효능감	-	-	.83(22.73)*	-	-
	자존감	-	-	.74(22.03)*	-	-
전공일치	전공일치	-	-	-	1.00	-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	-	-	-	.75(18.49)*
	대인관계	-	-	-	-	.80(19.49)*
	복지수준	-	-	-	-	.68(19.04)*

		전문계				
변 수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
가정배경	부모학력	.51(4.16)*	-	-	-	-
	가정소득	.67(4.22)*	-	-	-	-
고교학업	교과흥미	-	.80(6.95)*	-	-	-
	교과성취	-	.86(6.95)*	-	-	-
자아정체감	자아인식	-	-	.82(23.49)*	-	-
	자아효능감	-	-	.86(25.76)*	-	-
	자존감	-	-	.72(23.49)*	-	-
전공일치	전공일치	-	-	-	1.00	-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	-	-	-	.79(22.20)*
	대인관계	-	-	-	-	.80(22.21)*
	복지수준	-	-	-	-	.72(21.46)*

표준화 추정치, () t-value,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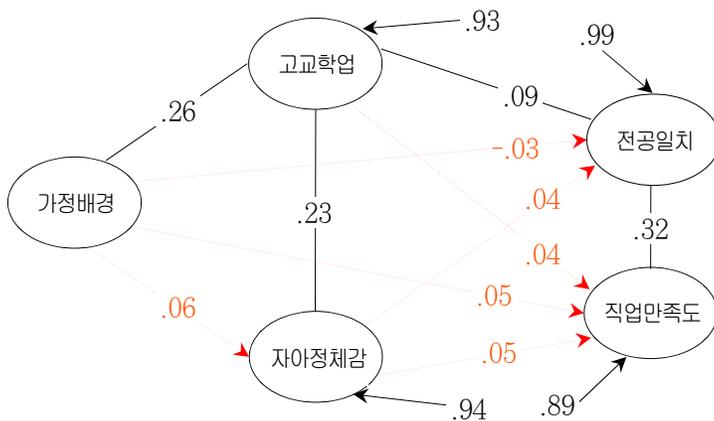
<그림 2>, <그림 3>은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의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결과는 표준화 추정치이며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다.

인문계 패널의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와의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를 제시한 <그림 2>를 살펴보면, 가정배경 → 고교학업, 고교학업 → 자

아정체감, 전공일치, 전공일치 → 직업만족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그 밖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배경은 고교학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요인이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비교적 일관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고교학업 수준은 현재 직업과 자신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전공과 비교적 일치하는 직업을 가지는 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고등학교 시기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을 가진 현재 자아정체감 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 즉 교과에 대한 흥미와 성취 정도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함께 학교과정을 마친 후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수준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이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학업수준이 전공 선택의 여지를 충분히 반영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모형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직업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전공일치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선택 이전 직업발달 과정에서 선택한 전공과 현재 선택한 직업이 일치할 때 직업만족도는 여타의 요인보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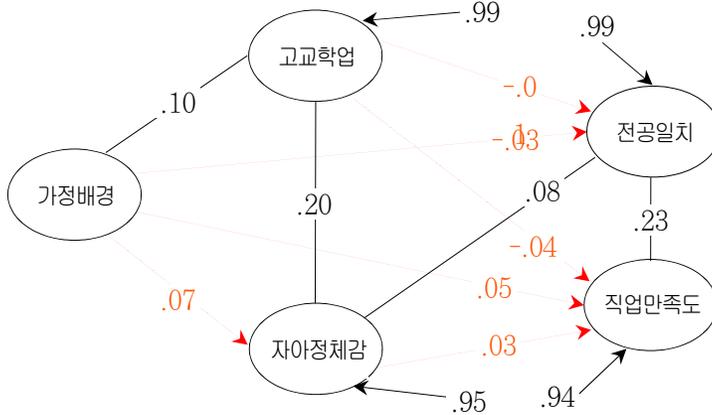
<그림 2> 인문계 패널의 직업만족도 분석 결과



인문계 패널은 대부분 대학진학을 통해 직업으로 이행하는 진로발달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이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일치 정도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전공학습이 현재 직업 활동에 익숙하여 직무를 좀 더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로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좀 더 추가하여 논의하면 직업만족도에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은 고교학업으로(〈표 7〉 참조), 고교학업이 직업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아정체감이나 전공일치를 매개로 직업만족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문계 패널 모형에서 직업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가정배경 → 고교학업 → 전공일치 → 직업만족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전문계 패널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이다.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가정배경 → 고교학업, 고교학업 →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 전공일치, 전공일치 → 직업만족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배경이 고교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인문계 패널과 비교하여 미미하지만 동일하게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활동은 계열에 상관없이 가정배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재확인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이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결과 또한 인문계 패널과 유사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문계 패널 분석 결과의 특징은 고교학업 → 전공일치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아정체감 → 전공일치 경로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전문계 패널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전공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문계 패널은 청소년기를 마무리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여타 능력을 확인하여 대학전공을 선택하는 일반적 진로발달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진로성숙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공(전문계)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교학업 과정에서 대학진학 또는 취업에로의 진로방향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교학업이 전공일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정체감이 매개될 때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맥락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전문계 패널의 직업만족도 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는 동일 연령이나 발달과정임에도 계열 간의 교육과정으로 인한 진로발달 단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인문계 학생들에게 고교과정은 진로탐색과 구체화 과정인 반면, 전문계 학생들에게는 진로선택을 마무리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진로탐색이 이루어진 다음 선택한 전문계 진학일지라도 인문계 학생들보다 진로탐색이 미성숙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문계고 진학은 가정배경이나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진로발달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계에 진학했다 할지라도 진로준비를 유예하고 인문계 학생들과 유사한 대학진학으로 방향이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발달과정은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문계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고교 전공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여 진학하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공일치도가 고교전공과의 일치인지 대학전공과의 일치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계 패널 모형 역시 가장 중요한 경로는 전공일치 → 직업만족도이다. 고교 학업 정도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에 따라 진로가 재조정된 전공이 현재 직무와 일치할 때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문계 패널의 직업만족도는 가정배경 → 고교학업 → 자아정체감 → 전공일치 → 직업만족도 경로인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계 패널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매개적 인과관계 경로는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자아정체감이 전공일치를 매개하여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미미하여 의미 있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표 7> 전체, 직접, 간접효과

변수	인문계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정배경	.26(5.37)***	.26(5.37)***	-	→ 고교학업
	.12(3.03)**	.06(1.51)	.06(4.16)***	→ 자아정체감
	.00(-.09)	-.03(-.84)	.03(2.83)**	→ 전공일치
	.06(1.49)	.05(1.13)	.02(1.04)	→ 직업만족도
고교학업	.23(5.94)***	.23(5.94)***	-	→ 자아정체감
	.10(3.01)**	.09(2.68)*	.01(1.08)	→ 전공일치
	.09(2.24)*	.04(1.16)	.04(3.04)*	→ 직업만족도
자아 정체감	.04(1.10)	.04(1.10)	-	→ 전공일치
	.06(1.50)	.05(1.28)	.01(1.09)	→ 직업만족도
전공일치	.32(8.83)***	.32(8.83)***	-	→ 직업만족도
변수	전문계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정배경	.10(2.10)*	.10(2.10)*	-	→ 고교학업
	.09(2.07)*	.07(.66)	.02(2.01)*	→ 자아정체감
	.04(1.06)	.04(.89)	.01(1.19)	→ 전공일치
	.06(1.37)	.05(1.20)	.01(.86)	→ 직업만족도
고교학업	.20(5.17)***	.20(5.17)***	-	→ 자아정체감
	.00(.07)	-.01(-.42)	.02(2.27)*	→ 전공일치
	-.03(-.86)	-.04(-1.06)	.01(.65)	→ 직업만족도
자아정체감	.08(2.52)*	.08(2.52)*	-	→ 전공일치
	.05(1.38)	.03(.90)	.02(2.35)*	→ 직업만족도
전공일치	.23(6.52)***	.23(6.52)***	-	→ 직업만족도

*p<.05, **p<.01, ***p<.001, () t-value

본 연구모형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결과는 방해오차(ζ)이다. 먼저, 고교학업의 방해오차는 인문계와 전문계 각각 .93과 .99이다. 이것은 본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정배경이 고교학업을 설명하는 정도가 약 7%, 1%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일차적으로 두 패널, 즉 인문계와 전문계 간의 고교학업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고등학교 시기에 부모학력과 가정소득은 고교학업인 교과흥미와 교과성취를 설명하는 정도가 전문계 패널보다 인문계 패널에서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계 패널의 방해오차가 .99인 것은 가정배경이 고교학업을 거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단계에서 인문계와 전문계의 계열분리는 이미 학업성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중등학교의 학업성취는 가정배경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 전문계 패널의 가정배경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맥락을 가지는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모형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전공일치 방해오차로,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이 모두 .99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모형의 인과관계 경로에서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이 전공일치를 설명하는 정도가 1%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직업과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 연구모형 외에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어, 가정배경, 학업, 자아정체감과 전공일치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본 연구모형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직업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공일치 정도라는 중요한 함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공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본 연구모형 외에 존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추적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배경과 진로발달 특성, 즉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직업이 과거와 달리 생계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생활을 위한 토대라고 전제할 때 직업에 만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직업은 특정시기에 순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배경을 기준으로 학령기의 학업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진로성숙 정도와 관련된 장기적·연속적 과정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 시기의 계열분리, 즉 인문계와 전문계의 선택은 학교를 졸업한 후의 직업선택과 그에 따른 만족정도를 차이 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결론, 그리고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문계 패널은 가정배경의 지원에 따라 고교학업이 달라지고, 고교학업 정도에 따라 현재 직업과 일치하는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게 되는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문계 패널은 인문계 패널 모형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계 패널 모형은 가정배경이 고교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유의하며, 고교학업이 현재 직업과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자아정체감이라는 진로발달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공일치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문계와 공통적인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가정배경과 진로발달 특성인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요인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문계는 고교학업, 전문계는 자아정체감이 전공일치에 결정적인 요인이며, 전공일치는 두 패널 공통적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결론은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그리고 진로준비 과정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열에 따라 다른 진로지도가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 직업과 전공을 일치시킬 수 있는 대학 진학 안내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직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대학 전공 선택이 필요하다. 반면, 전문계 학생들은 진로준비 과정에 있는 자신의 전공이 실제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지 재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문계고 입학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전공의 재탐색을 통해 학교에서 직업에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진로지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모형을 통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현재 직업과 일치하는 전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교 또는 대학교육 과정의 전공 학습은 직무를 익숙하게 하고 능력발휘를 용이하게 하므로, 전공은 여타의 요인들보다 직업에 만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 분석 결과, 직업만족도의 결정요인인 전공일치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설명정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배경과 고교학업, 자아정체감이 전공일치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1% 정도인 것이다. 이에 직업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공일치 정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치는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중등학교부터 대학교육 과정까지의 데이터가 모형

에 투입되어야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대학에서 직업 관련 학습과 훈련이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학교육 과정의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와 매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은 계열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계 패널을 분석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대학교육 과정의 진로발달 특성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육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 과정의 진로발달 특성(예를 들면,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학업성취, 직업선택 등)이 모형에 투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직업만족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을 순조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정의 진로발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고미나·박재황(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69~85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곽필순·김봉환(2005). 『Holland의 직업성격과 직업 환경의 일치도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제6권 제3호 통권39호, 837~848쪽, 한국상담학회.
- 권지은(2010). 『고등학교 수학교과를 통한 진로 교육과의 연계 방안 연구: 수학문제와 연계한 대학 전공별 정보탐색 교재개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영락·임성택(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63~80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13).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성남(2013). 『특성화고졸 취업자의 진로발달 유형과 직장만족도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141~162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장희·정성수(2012). 『공업계열 특성화고교생의 직업흥미-전공 일치도, 직업흥미-포부 일치도,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1~18쪽, 한국교원교육학회.
- 김종운·최미숙(2011). 『가족기능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제30권 제3호, 175~196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진영(2010). 『진로지도 측면에서의 고등학교 수학 I 교과서 분석: 행렬 단원을 중심으로 15종 교과서의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성화(2014). 『기본교육과정 직업관련 연계성 분석: 실과, 진로와 직업, 재할 교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15권 제1호, 331~355쪽,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문승태·김연희(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4권 제2호, 49~60쪽, 한국농업교육학회.

- 박미희·조규성(2013). 『과학교과교육: 과학 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인식』, 『과학교육논취』, 제38권 제1호, 39~48쪽. 전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 박소영·민병철(2008). 『진로결정시기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제4호, 245~270쪽,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용관(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현희·박미정·채정현(2009). 『제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1권 제4호, 145~158쪽,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 송민경(2009). 『청소년기 진로성숙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고교계열선택 및 고졸이후 진로선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호, 51~81쪽, 한국청소년학회.
- 시사상식편집부(2014).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신희영·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97~323쪽,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어운경(2010). 『전공-직무 일치와 직업 가치관에 따른 직무 만족도 변화 추이』, 『상담학연구』, 제11권 제2호, 721~738쪽, 한국상담학회.
- 오성배(2012). 『교과 흥미도와 학업성취수준이 과학기술분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245~265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유영미·문승태(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1~19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기중(2012). 『구조방정식모형』, 국민대학교 출판부.
- 이대성(2011). 『중등사회과 교과지도와 진로활동을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안』,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제2011권 제2호, 131~144쪽,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이현림·천미숙(2004). 『고등학생의 의사결정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 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106~128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혜상(2011). 『아이를 망치는 부모』, 펍컴북스.
- 이효정(2001). 『남녀공학 공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관련 환경변인 탐색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아(2013). 『진로정체감이 성취목표, 몰입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경로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호, 47~68쪽, 한국청소년학회.
- 자유학기제. <https://freesem.moe.go.kr>
- 전훈·조형대·조현진·이혜선(2010).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진로계획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2호, 235~257쪽, 한국청소년학회.
- 조명실·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제8권 제3호, 1085~1099쪽, 한국상담학회.
- 조성연·이선순(2006). 『성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127~140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최수정·정철영(2007).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2호, 161~183쪽, 한국농업교육학회.
- 함승연(2011). 『전문계고 학생의 전문교과이해도 및 학교시설인식도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직업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제11권 제2호, 238~254쪽, 한국기술교육학회.
- Basow, S. A. & Howe, K. G.(1979). "Model influences on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27 No.3, pp. 239~243.
- Elton, C. F. & Smart, J. C.(1988). "Extrinsic job satisfaction and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2, pp. 226~238.
- Fricko, M. A. & Beehr, T. A.(1992).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interest congruence and gender concentration as predictors of job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45 No.1, pp. 99~117.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rr, E. L. and Cramer, S. H.(1992).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4th ed)*, NY: Harper Cplins.
- Hollander, J. L.(1972). "The present status of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In J. M. Whiteley & A. Resniokoff(Eds.), *Perspectives on vocational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Lofquist, L. H. & Dawis, R. V.(1969). *Adjustment to work*, NY: Appleton Century Crofts.
- MacKay, W. R. & Miller, C. A.(1982). "Relation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sex variables to the complexity of worker functions in the occupational choi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0, pp. 31~39.
- Smart, J. C., Elton, C. F. & McLaughlin, G. W.(1986).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9, pp. 216~225.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_____ (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 Vol.30, pp. 88~92.
- Werts, C. E.(1968). "Paternal influence on career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15, pp. 48~52.

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Rhee, Ki-jong

Kwak, Soo-ra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using KEEP data from the 1st to the 9th waves. It is hypothesized that there are causal relations among occupational satisfaction, family background, academic performance, self-identity, and major-job congruence.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s the occupational satisfaction in terms of differences between two types of high school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SEM by LISREL program.

As a result, there is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in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hools in the effects of major-job congruence to occupation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dentifying training and learn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adolescents in the transition process from school to world of work.

Key words: career development, occupational satisfaction, academic performance of high school, self-identity, major-job congruence

